

치주치료전략 : 치주진단과 치료전략 세우기

이 중 석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과거 치주진단체계는 많은 연구결과와 함께 병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차례 변경되어 왔다. 특히 1999년 미국치주과학회에서 진단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면서 치주질환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체계는 치주질환의 병인론인 미생물과 숙주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 질환을 모두 아우르려 한 시도였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 질환 체계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그러기에 이에 대한 임상적 활용도는 매우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치주진단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체계는 임상가를 위한 체계로 변경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기반으로 Grade와 Stage로 질환을 나누어 활용이 좀더 용이하게 하였다.

치주질환자의 치료전략은 단순히 치주질환을 진단하는 것만으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아별 예후를 평가하고, 보철적/교정적 이해를 기반으로 치주를 평가하여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된 치주진단체계에서는 다수치아가 발거되었거나 교합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질환의 한 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치료 계획 수립을 제안하려고 하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진단과 예후 평가를 기반으로 치주질환자의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고찰을 해볼 것이며, 이어지는 기본치주치료전술과 복합치주치료전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 * Medical University of Vienna, Department of Oral Biology 방문교수
- * 대한치주과학회 대외협력이사
-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주임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원내생진료실장